인문연구 제88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8, No. 1, pp.63~90
http://dx.doi.org/10.21211/JHUM.88.3

『마라/사드』: 1960년대 프랑스 혁명 읽기*

김대보**

〈차 례〉

1. 머리말
2. 마라: 인민의 벗? 자유의 적?
3. 1960년대와 프랑스 혁명사
4. 페터 바이스가 표현한 마라
5. 마라와 사드, 그리고 다시 1960년대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페터 바이스(Peter Weiss)의 『마라/사드』를 통해 바이스가 생각한 혁명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마라는 극중에서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지만, 바이스는 그의 혁명이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음을 역설하면서, 혁명의 원칙 또는 가치가 끊임없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변화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

* 본 논문은 68 공동학술대회 〈장기 68년과 저항의 동학: 급진성의 순환에서 결정적 사건으로〉(영남대, 2019년 5월 31일-6월 1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은 바이스의 혁명이 코르데에게 암살당한 마라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바이스가 현대 사회에도 저항과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주제어: 페터 바이스, 『마라/사드』, 혁명, 프랑스 혁명, 저항, 1960년대

1. 머리말

마라(Jean-Paul Marat)는 프랑스 혁명기의 혁명가들을 말할 때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 당통(Danton) 등과 같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그리고 '흡혈귀'(buveur de sang)라는 별명이 존재할 만큼 공포정(Terreur) 당시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마라가 죽여야 한다고 말한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혁명의 적이었다. 그럴지라도, 적들의 수가 늘어나기 전에 빨리 숙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와 죽음을 쉽게 연상시킬 수 있다.

또한, 마라에게 붙여진 가장 유명한 별명은 그가 만든 신문의 이름인 "인민의 벗"(l'Ami du peuple)이었다. 이 신문을 발행하기 전 1789년 8월에 『애국신보』(Le Moniteur patriote)를 창간했지만 창간호를 끝으로 다시 빛을 보지 못한 경험을 통해 독자층을 넓힐 수 있고 민중 투사들과 교류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제목을 찾았는데, 그 제목이 바로 '인민의 벗'이었다.[1] 그리고 1792년 8월 10일, 이른바 제2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행정, 사법 개혁 이후, 같은

1) Bianchi, S., *Marat : "L'Ami du peuple"*, Paris, Belin, 2017, p. 39.

해 9월 21일에 국민공회는 입헌군주제 국가였던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었음을 선포했다. 뒤이어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등 프랑스 혁명이 전에 없이 급진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동력은 바로 민중이었다. 당시 여러 정치인들과 같이 마라는 이듬해 자신이 죽기 전까지, 반혁명 분자들뿐 아니라 애국자의 탈을 쓴 자들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 행동을 민중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 결국 민중이 보기에 프랑스 혁명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삶이 '혁명적'으로 나아지지 않자, 민중은 혁명가들을 압박하여 혁명을 가속화시켰고, 마라는 그들의 이익, 자유를 옹호하는 발언과 언론 논평 등을 한 것이다.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소르본의 프랑스 혁명사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미셸 보벨(Michel Vovelle)이 압축적으로 정리했듯이, 마라는 언론인으로서 인민 대중의 대변인 역할을 함으로써 '인민의 벗'이 되었던 것이다.[2)]

그런데, '인민의 벗' 마라는 1793년 7월 13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샤를로트 코르데(Charlotte Corday)라는 캉(Caen) 출신의 한 여성에게 살해당했다. 산악파는 정쟁을 벌이고 있던 지롱드파의 사주로 코르데가 마라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선전했고, 코르데는 재판 과정에서 마라가 1792년에 일어난 9월 학살(massacre de septembre)과 산악파의 지롱드파 숙청 등을 주도한 것이 살해 이유라고 진술했다.[3)] 코르데에게 마라는 혁명으로써 프랑스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를 폐허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페터 바이스(Peter Weiss)가 쓴 희곡인 『마라와 사드』(1964년, 원제 : 사드 후작의 감독 하에 샤랑통 정신병원 수용자들이 연기

---

2) Michel Vovelle, "MARAT, Jean-Paul", Soboul, A., (dir.),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PUF, 2006, p. 713.

3) 코르데의 마라 암살과 재판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고: 예지민, 『샤를로트 코르데의 혁명재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한 장-폴 마라의 추적과 살인), 그리고 이 작품이 바탕이 된 피터 브룩(Peter Brook) 감독의 영화 『마라-사드』(1967년)는 바로 이 코르데의 마라 암살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4] 마라는 자크-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의 그림 속 장면처럼 피부병 치료를 위해 욕조 속에 몸을 담근 채 죽음을 맞이했고, 영화에서는 그 욕조에서 나오지 않은 채 줄곧 혁명이 그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으며, 그의 별명과 같이 민중 편에 서서 민중을 혁명의 동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이스의 희곡과 브룩의 영화에서 혁명가 마라, 또는 프랑스 혁명을 대변하고 있는 마라는 '개인의 자유'를 대변하고 있는 사드 후작(marquis de Sade)을 만난다. 극중에서 자신이 혁명이라고 외치는 마라는, 실제로 "조국이 위험에 처했다"(la patrie est en danger)라는 논리로 권력이 점차 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하고, 일반적인 법질서를 중단시키고 공화국을 구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던 1793년에 그 중심에 있었다. 물론 마라는 의회 내의 그 어떤 위원회에도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공포정기 폭력의 책임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로베스피에르와 당통에 비해 자유로웠지만, 그가 쓴 글은 그 자신이 혁명기 폭력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바이스는 혁명을 신봉하고 대의를 내세우는 마라에게 사드라는 인물을 대립시켜 논쟁을 벌이게 만들면서 혁명이라는 대의 속에 휩쓸려가는 개인들이 얼마나 그 대의와 동떨어져있었는지 보여주고, 그러면서 혁명과 개인의 문제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국내 독일 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이스의 『마라/사드』 연구를 종합하면, 이 문제가 비단 바이스가 이 작품을 발표한 1960년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의미를 가질 수

4) 이 영화는 현재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Url : https://www.youtube.com/ watch?v=RJc4I6pivqg&list=WL&index=75&t=0s).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제나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현재의 가치 혹은 원칙이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끊임없이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바이스의 희곡『마라와 사드』와 브룩의 영화『마라-사드』에서 마라를 통해 혁명이 어떻게 표상되고, 이것이 1960년대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려 한다. 다만, 마라와 사드 모두가 이 희곡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이지만, 이 글에서는 실제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이끌어 나가면서 정치적 글쓰기를 통해 정치계의 중심에서 더욱 큰 역할을 했던 마라에 집중하려고 한다.[5] 그리고 사드 후작을 만난 마라의 혁명이 극중에서 인식되는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바이스가 말하려는 혁명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마라가 문학계에는 사드보다 비교적 생소한 인물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마라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68운동의 흔적'이라는 맥락에서, 바이스가 이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혁명의 본질과 의미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전유할 수 있는지 모색해보려 한다.

---

5) 사드 후작은 1763년에 결혼한 이후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고, 수차례 투옥되기도 했다. 구체제 말에는 처가의 요청으로 '봉인장'(lettre de cachet)을 받아 바스티유에 수감되었다. 혁명 발발 이후에는 혁명에 참여하여 파리의 한 구역의 의장이 되기도 했지만, 온건파라는 이유로 1793년 12월에 체포되었고, 6개월 후 사형선고를 받았다. 실제 그의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고, 1794년 가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이후 1803년, 부도덕한 작가라는 이유로 샤랑통에 강제로 입원하게 된다. 1814년 12월 2일, 여러 연극을 자신이 직접 상연하기도 했던 샤랑통 병원에서 사망했다(Sledziewski, E. G., "SADE, Donatien Alphonse François, Marquis de", Soboul, A., (dir.), op. cit, p. 945.

2. 마라 : 인민의 벗? 자유의 적?

바이스의 원작에는 없지만, 영화 초반에 진행자는 "마라보다 더 열정적인 혁명가를 본 적이 없다"라고 운을 뗀 뒤, 다음과 같이 마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 "그런데 마라는 인민의 벗인가 아니면 자유의 적인가? 희망을 쓴 작가인가, 아니면 당대의 가장 악한 살인마인가? 마라는 좋은가, 나쁜가?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다. 마라가 사드와 벌이는 논쟁을 들어보자."

사실 이러한 이분 구도로 이해하기에 마라는 당통이나 로베스피에르와 같이 매우 복잡한 인물이다. 마라는 그의 신문 『인민의 벗』에 썼듯이 프랑스인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존해있을 당시 프랑스 혁명을 위협하는 국내와 국외의 반혁명 세력이 상존하고 있던 현실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는 그의 말 때문에 마라에 대한 해석은 양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또한, 마라를 다른 누군가와 같은 편이라거나 정적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마라는 자신이 왕당파와 귀족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애국자의 탈을 쓴 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면서 로베스피에르를 돕기도 했지만, 반역 혐의를 받는 장군들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주저하고 있는 구국위원회(Comité de Salut public)[6]를 공격하면서 이 위원회를 변호하던 로베스피에르

6) 국내에는 '공안위원회'라는 번역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흔히 '공공의 안녕', 혹은 '공공의 안전'을 줄인 '공안'으로 번역되는 Salut public은 키케로의 『법률론』(De Legibus)에 등장하는 'salus populi suprema lex esto'에서 온 표현인데('le salut du peuple est la loi suprême'), 인민이 위험에 처했

와 대립하기도 했다.[7]

그러나 마라에 대한 해석은 그가 죽은 후 현재까지 정치가 또는 연구자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대체로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분 구도는 바이스의 원작과 브룩의 영화가 등장한 1960년대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프랑스 혁명 당시부터 존재했다. 테르미도르 반동(la réaction thermidorienne) 이후, 테르미도르파는 1793~94년의 공포정과 폭력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정적인 산악파 의원들에게 돌리려고 했고, 이를 위한 온갖 선전을 기획했다. 그러면서 국민공회(la Convention nationale)와 구국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킨 로베스피에르와 그 일파를 숙청하면서 공포정과 단절하려 했다. 이러한 의도에서, 로베스피에르를 괴물로 묘사하거나, 또는 그가 왕이 되려고 했다며 '로베스피에루아(Robespierroi)'라고 부르기도 했고,[8] 로베스피에르가 다녔던 고등

을 때 일상적인 법들은 정지되고 인민을 구하기 위해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확히 'salut public'이 '구국', 즉 나라를 구한다는 뜻은 아니고, '공화국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어 'salut'는 단순히 '안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당시 'salut public'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당대인들은 하늘이 주는 구원을 지상에 내려와 펼친다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는 '구국위원회'가 반혁명자 색출과 같은 정치 경찰의 역할이 아니라 집행권력이 담당하는 모든 사안 가운데 위험에 처한 공화국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맡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어 'sûreté générale'에 가까운 '공안'보다 '구국'이 더욱 어울릴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사용했던 '철도공안'이라는 표현과 같이, 한국어에서 '공안'은 안전(sûreté 또는 sécurité)를 책임지는 경찰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salut public'의 영어 번역어는 'public safety'인데, 'safety'는 'salut'가 가지는 의미의 일부만을 전달할 뿐이다. 따라서 프랑스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이다.

7) Jaurès, J., *Histoire socialist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t. 4, Le gouvernement révolutionnaire*, Paris, Les éditions sociales, 2014, pp. 207-209.

8)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측근들에 대한 비방은 다음의 문헌 참고 : Baczko, B., *Comment sortir de la Terreur. Thermidor et la Révolution*, Paris, Gallimard, 1989.

학교의 교감이었던 프로아야르 신부(l'abbé Proyart)는 로베스피에르를 깎아내리기 위한 소문을 지어내기도 했다. 즉, 비가 오는 날 학교 대표로 헌사를 낭독한 로베스피에르를 시큰둥하게 지나친 루이 16세의 일화를 만들어내어 훗날 로베스피에르가 이 일 때문에 루이 16세를 죽여서 복수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9] 마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테르미도르파에게 그는 로베스피에르와 마찬가지로 비난받아 마땅한 살인마였다. 예를 들어 마라와 동시대를 살았던 문인 레티 드 라브르톤(Nicolas Edme Restif de La Bretonne, 1734-1806)은 "사람 머리만 찾는 피비린내 나는 팜플렛 작가", "비열한 마라", "피비린내 나는 흉악범이자 선동적인 언론인"이라고 마라를 표현했다.[10]

19세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비난은 계속 이어졌고, 마라를 깎아내리면서 코르데의 마라 살해를 나라를 구한 영웅적인 행동으로 추켜세우기까지 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문인이자 정치가인 알퐁스 드 라마르틴(Alphonse de Lamartine, 1790-1869)은 『지롱드파의 역사』(*Histoire des Giorondins*)에서 코르데를 "조국의 숭고한 해방자이고 폭군을 죽인 용감한 살인자"라고 부르며 코르데를 위해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양 극단의 의미를 포함"하는 "암살천사"(l'ange de l'assassinat)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11] 미슐레(Jules Michelet), 샤토브리앙(François-Revé de Chateaubriand) 등도 마라를 혁명기 폭력의 주범으로 몰아세웠고, 『프랑스 혁명의 사회주의적 역사』(*Histoire socialist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를 쓴 19세기 말의 정치가 장 조레스(Jean Jaurès)도 마

9) Leuwers, H., *Robespierre,* Paris, Fayard, 2014, p. 28-31 ; Belissa, M., et Bosc, Y., Robespierre. *La fabrication d'un mythe*, Paris, Ellipses, 2013, pp. 33-34

10) Bianchi, S., op. cit, pp. 234-235.

11) Lamartine, A., *Histoire des Girondins,* Livre Quarante-quatrième, Tome 6, Paris : Furne et Cie - W. Coquebert, 1847, pp. 267-268.

찬가지였다. 조레스는 로베스피에르의 편에 서서 그의 행동을 변호했지만, 모든 폭력의 책임을 마라에게 돌렸고, 좋게 말해 '애국하는 미친놈'(fou patriote)이고 나쁘게 말하면 '성격 나쁜 미친놈'(fou atrabilaire)이라고 일갈했다.[12] 하지만 조레스가 마라라는 인물 자체를 총체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조레스는 "마라의 죽음은 혁명으로서는 크나큰 불행이었다"라고 운을 뗀 뒤, "만약 그가 1년만 더 살았더라면 (프랑스의) 치명적인 분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13] 그러나 이러한 마라에 대한 평가는 이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었다. 당시까지 '인민의 벗'에 대한 학계 수준의 연구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알퐁스 올라르(Alphonse Aulard, 당통 변호)와 알베르 마티에즈(Albert Mathiez, 로베스피에르 변호) 사이에 벌어진 역사적 논쟁 틈에서 마라는 역사학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14]

20세기에 들어 마라를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전기가 출판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 마라에 대한 글의 수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마라가 어떤 인물인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15] 19세기 동안 널리 퍼진 마라에 대

12) Bianchi, S., op. cit, pp. 240-241.

13) Jaurès, J., op. cit, p. 219.

14) 그렇더라도 올라르나 마티에즈가 마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올라르는 마라의 죽음에 대해 프랑스 공화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역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언급은 제3공화국의 수립 이후, 공화국이 수립되려면 항상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치인들, 학자들의 이론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클레망소(Georges Clémenceau)와 같은 정치인은 의회에서 '혁명은 한 집합체'(la Révolution est un bloc)라고 말하면서 공화국 수립을 위한 희생은 필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15) 한편, 1930년대 이후 프랑스 혁명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샤를로트 코르데는 노르망디의 오주 지방(pays d'Auge, 코르데의 고향)에서 지역의 영

한 평가와 같이 마라는 괴물 또는 공화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흡혈귀인가, 아니면 20세기의 여러 전기들이 주목하듯이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가? 현재까지도 마라가 어떤 인물이라는 확실한 평가는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마라를 조명하면서 마라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인물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16]

3. 1960년대와 프랑스 혁명사

1962년, 프랑스 혁명사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개정판이 발행되면서 기본서로 읽히고 있는 알베르 소불(Albert Soboul)의 『프랑스 혁명사 개설』(Précis d'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이 출판되었다.[17] 소불의 이 개설서는 훗날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이른바 프랑스 혁명의 정통 해석을 대변했고, 프랑수아 퓌레(François Furet)와 드니 리셰(Denis Richet)는 그들이 공동 집필한 『프랑스

웅으로 기념행사에 등장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극우 집단의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점은 코르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해석까지도 가능했기 때문이다(Mazeau, G., *Le bain de l'histoire. Charlotte Corday et l'attentat contre Marat 1793-2009*, Seyssel, Champ Vallon, 2009, pp. 345-346).

16) 마라에 대한 전기 가운데 최근에 출판된 세르쥬 비앙쉬의 『마라: "인민의 벗"』(2017)에서도, 저자는 마라에 대한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마라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뒤 그에 대한 평가를 독자에게 맡긴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17) 프랑스에서는 에디시옹 소시알(Les Editions Sociales) 출판사가 1974년, 1982년에 개정판을 출판했고, 이후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La Révolution française*라는 제목으로 2015년까지 수차례 개정판을 발행했다. 국내에는 최갑수 교수가 『프랑스 大革命史』(두레, 1984)라는 제목으로 처음 번역서를 출판했고, 2018년에는 앞의 번역서를 수정 및 보완한 뒤 『프랑스혁명사』로 제목을 변경했다.

혁명』(La Révolution française, 1965)을 출판하면서 알프레드 코번(Alfred Cobban)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수정주의 해석의 막을 열었다.[18] 이 두 저서에서 마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그려진다. 소불은 마라를 "호의와 깊은 인류애로 상퀼로트의 운명을 보듬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고, "'자유의 순교자'로서 (...) 팡테옹에서 신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했다.[19] 반면 퓌레는, 마라가 1793년의 경제, 사회, 대외적 위기 속에서 민중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민중의 봉기를 반혁명으로 매도했고, 코르데가 살해하지 않았다면 '혁명적 순수성'을 대표하는 그의 이미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해석은 공포정을 인식하는 상반된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수정주의자들은 공포정을 프랑스 혁명의 '일탈'(dérapage)로 여겼고, 1789년 7월 14일에 파리 민중들이 바스티유를 함락시켰을 때 이미 프랑스 혁명에는 폭력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에 따르면 1793년에 이미 1871년(파리 코뮌)과 1917년(러시아 혁명, 이후 전체주의)이 예견되어 있었다.[20]

프랑스에서 수정주의자들이 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프랑스 혁명사를 본격적으로 이용했다면,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와 홀로코스트라는 범죄를 저지른 독일 사회를 분석하는 데 프랑스 혁명을 이용했다. 우선, 국가사회주의와 홀로코스트의 분석에서 '독일의 특수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즉, 독일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 혁명이 없었고, 그에 따라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가 구조적으로 취약했으며, 옛 귀족들, 군대 질서, 그리고 절대주의로부터 탄생한 권위에 복종이라

18) 프랑수아 퓌레 · 드니 리셰 지음, 김응종 옮김, 『프랑스혁명사』, 일월서각, 1992.

19) 알베르 소불 지음, 최갑수 옮김, 『프랑스혁명사』, 교양인, 2018, pp. 372-373.

20) Christofferson, M. S., *Les intellectuels contre la gauche. L'idéologie antitotalitaire en France (1968-1981),* Marseille, Agone, 2009, p. 425.

는 전통적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이다.[21]

물론, 양 독일에서 차이는 있었다. 우선 서독에서는 '독일의 특수성'과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서 당시 독일 사회를 이해하려고 했다. 반면 동독에서는 독일의 '불행한 변화'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다시 말해 독일에도 혁명을 겪은 프랑스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대상을 찾으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역사서술이 이어졌고, 그러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는 1790년대에 있었던 독일의 자코뱅이었다.[22] 즉, 혁명기 프랑스의 자코뱅들처럼 독일 지역에도 자코뱅이 당시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은 자유의 나무를 심으면서 공화국과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전파하려고 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결국 서독의 역사가들은 '독일의 특수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 서술 구조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한 셈이었다. 양 독일에서 이처럼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례에서 모두 프랑스 혁명은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23] 그렇더라도, 소수의 역사가

---

21) Middell, M.,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llemagne: du paradigme comparatiste à la recherche des transferts culturel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 317, 1999, url : http://journals.openeditioin.org/ahrf/266:DOI:10.4000:ahrf.266

22) 18세기 당시 신성로마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던 현재 독일 지역에는 1790년대에 자생적으로 발달한 자코뱅 집단이 프랑스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형태로 여러 제후령 내에 존재하고 있었고, 혁명기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마인츠(1792년부터 1793년까지 마인츠 공화국)와 같은 곳에서는 외부의 힘으로 자코뱅 클럽이 결성되기도 했다. 또한 1797년부터 라인강의 서안 지역에 결성된 공화국(République cisrhénane)에서도 자코뱅들의 여러 클럽이 결성되어 정치적 역할을 담당했다. 실제로, 이런 지역에서 자코뱅 활동가들은 민간 행정을 담당했고, 프랑스에 흡수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러면서 선전 활동에 큰 힘을 쏟았는데, 인권,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자유, 평등 등을 옹호하는 많은 신문이 쏟아져 나왔다. 독일의 자코뱅에 대한 간결한 설명은 다음의 문헌 참고 : Vovelle, M., *Les jacobins. De Robespierre à Chevènement,* Paris, La Découverte & Syros, 2001, pp. 77-83.

23) *Ibid.*

들만 프랑스 혁명사 자체를 연구했고, 대부분은 독일의 자국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교였다.[24]

이렇게 전후 독일 사회가 국가사회주의와 나치즘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한 점은 나치즘이 프랑스 혁명을 이용한 방식과도 결별하는 것을 뜻했다. 프랑스에서 20세기 전반기 동안 샤를로트 코르데와 마라의 죽음을 두고 극우파, 중도 우파, 좌파의 해석이 공존하고 있던 시기에,[25]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 사건을 나치의 국가사회주의 선전에 이용했다. 우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뒤, 우월한 독일인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프랑스인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코르데가 노르망디 출신이라는 점에서 스칸디나비아의 혈통, 즉 노르만족의 후예라고 포장함으로써 내전으로 항상 고통 받는 프랑스의 허약함을 강조하려고 했다. 즉, '우월한 인종'이 승리한 사례로 마라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 점은 아리안 족이 우월하다는 믿음 하에 '열등한' 유태인들을 '인종 청소'의 대상으로 삼았던 나치의 정당화 논리이자 선전 전략으로 발전되었다.[26]

---

24) 물론, 프랑스의 혁명사 연구자들의 저서는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을 통해 독일로 유입되어 있었다. 다만, 헤르만 벤델(Hermann Wendel)과 같은 정치인은 소비에트 연방의 탄생과 국가사회주의의 등장이라는 당대의 정치 지형을 보면서 소수 권력자들의 독재로 해석될 수도 있는 1793년을 거부하고 프랑스인들이 특권과 압제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1789년을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전유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 참고 : Ducange, J-N.,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social-démocratie. Transmissions et usages politiques de l'histoire en Allemagne et Autriche 1889-1934,*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12.

25) 전간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극우파는 코르데를 쇄신된 프랑스의 영웅으로 치켜세웠고, 중도 우파의 경우 반혁명의 영웅으로, 그리고 좌파, 특히 공산당은 코르데를 귀족적 광기의 상징으로 묘사했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 : Mazeau, G., op. cit, pp. 340-342.

26) Ibid, pp. 343-344.

1980년대에 들어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에게 더 이상 나치즘에 대한 대항이 핵심 주제에서 멀어지기 전까지, 프랑스 혁명사는 이처럼 줄곧 독일의 역사와 비교되는 대상이었고, 이는 1960년대 독일에서 프랑스 혁명을 인식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자국사의 관련성 속에서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는 것이 주된 경향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사에서 항상 논쟁이 되는 공포정, 폭력, 로베스피에르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발전되지 않았다.

4. 페터 바이스가 표현한 마라

사실 페터 바이스는 1950~60년대 프랑스 또는 독일의 프랑스 혁명사 연구 흐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바이스가 『마라/사드』를 집필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집에 따르면, 그는 분명 학계의 연구 현황뿐만 아니라, 마라 및 사드가 남긴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27] 이러한 바이스가 처음 프랑스 혁명사를 접한 것은 전간기 학창시절이었고,[28] 1934년에 히틀러를 피해 가족과 함께 독일을 떠나 런던,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스웨덴에 정착한 이후, 1950년대부터 독일어로 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했다.[29] 이후 1963

27) 본 글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의 도움을 받아 바이스의 자료집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료집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Braun, K., *Materialien zu Peter Weiss "Marat/Sade"*, Frankfurt, Suhrkamp, 1967. 원문을 직접 확인했으나 꼼꼼한 독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일어에 문외한인 필자에게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준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자료집의 내용을 분석한다면, 1950~60년대의 프랑스 혁명사 연구와 함께, 바이스가 의 희곡을 집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8) 탁선미, 「파국의 담론, 희망의 원칙 - 페터 바이쓰의 『마라/사드』 다시 읽기」,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3집, 1996, p. 307.

29) 바이스의 『마라/사드』를 옮긴 이상일은 바이스가 1960년대부터 독일어로

년, 아들과 함께 본 프랑스 혁명 영화, 또는 아들과 함께 들춰본 프랑스 혁명사 서적이 계기가 되어 바이스가『마라/사드』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본 영화 또는 책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바이스 본인이 혁명가로서 마라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점과 마라의 실제 저술로부터 극중 마라의 발언을 따왔다는 바이스의 말을 통해,[30] 그가 이 희곡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미 프랑스 혁명사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으며, (역사가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프랑스 혁명을 언급할 때 로베스피에르나 당통과 같이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과 다르게, 각종 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프랑스 혁명사가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괴물로만 묘사되었던 마라를 바이스가 선택했고, 이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당대의 글을 읽었다는 점만 고려하더라도 바이스가 마라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결국 바이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마라는 19세기의 주된 인식과 같은 폭군, 독재자, 흡혈귀 등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혁명의 대의를 실현하려는 혁명가의 모습만으로 등장하지도 않는다. 어찌 보면 1960년대의 학자들이 마라가 복잡한 인물이라는 점을 표현하려는 듯, 마라는 극의 흐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시중을 드는 시몬느에게 욕조에 찬물을 더 넣고 붕대를 바꿔달라고 외칠 때, 원작뿐만 아니라 영화의 기초가 된 영문 번역 수정판에 모두 "폭군처럼"이라는 지시문이 추

작품을 집필하면서 독일의 지식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지만(페터 바이스 지음, 이상일 옮김,『마라와 사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pp. 89-90), 본 글을 심사한 한 심사위원의 도움으로 바이스가 실제 1950년대부터 독일어 작품을 집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 페터 바이스 지음, 이상일 옮김, 앞의 책, pp. 97-98.

가되어 있다.[31] 즉, 마라 자신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시몬느에게 폭군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32]

그렇다면 바이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어떤 마라를 만들어냈을까? 다시 말하면, 바이스는 마라를 자신의 극 속에 배치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 우선 마라는 극 중에서 혁명을 방해하는 '악질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한다.

> "아직도 흘려야 할 피를 생각한다면, 이 목욕통을 적시는 핏물 정도가 문제냐. 일찍이 우리는 몇 백 명 정도만 죽으면 될 줄 알았지. 그러다가 몇 천 명이 죽어도 안 되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는 여기저기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씩들 죽어가고 있어. (...) 저기 저 담벼락 뒤, 지붕 위, 지하실에 우리 패 행세를 하는 악질들이 숨어 있어. 겉으로는 우리 혁명을 지지하는 척 하지만 그들의 검은 배포는 옛 왕조로 돌아갔으면 하는 거야."[33]

즉, 마라는 혁명이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혁명의 적을 찾아 숙청하고, 공화국의 완전한 쇄신을 위해서는 숙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운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의 적들에 대한 폭력을 민중의 '자기 방어'로 설명한다. 이러한 정당화는 마라의 신문인 『인민의 벗』(L'Ami du peuple, ou le

---

31) 위의 책, p. 16 ; Peter Weiss, *The Persecution and Assassination of Jean-Paul Marat as Performed by the Inmates of the Asylum of Charent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Marquis de Sade* (English version by Geoffrey Skelton, verse adaptation by Adrian Mitchell), New York, The dramatic Publishing Company, 1993, p. 19.

32) 정항균, 「페터 바이스의 『마라/사드』에 나타난 폭력 담론」, 『독일어문화권연구』 제23호, 2014, p. 154.

33) 페터 바이스 지음, 이상일 옮김, 앞의 책, p. 17. 영화 속 대사와 같음.

publiciste parisien)에서 실제 마라가 1790년 12월 10일에 한 말을 연상시킨다.

> "(...) 1년 전, 여러분은 5~600명을 죽이면서 그들을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줬을 것이다. 오늘은 아마 그 숫자가 만 명일 것이다. 몇 달 안에 여러분은 아마도 10만 명을 죽여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의 무자비한 적들의 씨를 말려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한 평화는 없기 때문이다."[34]

더욱이, 1792년, 지지부진한 혁명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민중들이 혁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혁명가들을 압박하고 있던 시기에 마라는 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걷겠다면서 여전히 혁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 그는 프랑스인들이 저항하여 구체제의 전제정을 무너뜨렸고 이후 왕정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혁명의 적들이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원작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망명귀족들은 외국의 왕실 또는 귀족들과 연합하여 이제 갓 공화국이 된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했고, 발미(Valmy) 전투, 제마프(Jemmapes) 전투에서 승리하여 프랑스를 구한 전쟁 영웅인 뒤무리에의 경우 네르빈덴(Neerwinden)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군에 패한 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면서 국민공회는 공식적으로 그가 반역자임을 선포하기도 했다. 결국 마라는 "나는 혁... 명... 이... 다..."라고 힘겹게 절규하면서 극 중에서 자신이 혁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또한 자신의 말이 곧 혁명의 본질과 맞닿아 있음을 간접적이지만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마라는 한참 동안 사드와 논쟁을 벌인 뒤, 줄곧 자신이

---

34) *L'Ami du peuple,* 17 décembre 1790, p. 6

35) Massin, J., *Marat,* Paris, Le Clus français de Livre, 1960, p. 224.

가지고 있는 혁명 이념에 대해 확신하고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 "왜 모든게 혼란스럽지? 내가 쓰거나 말한 모든 것들은 숙고의 결과이고 진실이었어. 내 모든 주장은 견고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의심이 들어. 왜 모든 것들이 거짓처럼 들리지?"[36]

마라가 이처럼 자신감을 보이지 않는 영역을 파고드는 사람이 바로 사드이다. 마라가 확신에 찬 어조로 변호하던 혁명은 사드를 만나서 현재적 의미 속에 위치하게 된다. 즉, 마라와 사드의 대화는 혁명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마라는 이 순간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과거의 혁명에 대해 말한 내용이 사드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에 쉽게 적용될 수 있지 않다는 점을 느낀 것처럼 말을 한다. 사드는 줄곧 욕망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했고, 마라 역시 혁명이 프랑스인의 자유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둘이 생각하는 자유의 층위는 달랐다. 사드가 극단적인 개인적 자유를 말했다면, 마라는 자유를 사회주의 측면에서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해방 상태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라는 사드 식의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마라는 1792년 7월 7일, 자신의 신문에서 "민중을 배반한 혁명은 민중에게 가장 큰 불행이 되었다"고 말하며 자유는 이제 "폭력, 무질서, 재앙, 불행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었다"고 당시 현실을 판단했다.[37] 즉, 아무런 위협이 없는 완전한 자유를 쟁취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누리는 섣부른 자유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사드는 이러한 마라의 의

---

36) 페터 바이스 지음, 이상일 옮김, 앞의 책, p. 71. 영화 속 대사와 같음.

37) *Oeuvres de JP MARAT (L'Ami du peuple), recueillies et annotées par A. Vermorel,* Paris, Décembre-Alonnier, Libraire-Editeur, 1869, p. 203.

견을 반박하고 있다.

결국 바이스가 말하는 마라와 마라의 혁명은 극 중에서도 코르데의 단검에 찔려 운명을 달리한다. 코르데의 행동이 반공화주의적이라거나, 극우파가 말하듯이 프랑스를 구했다는 식의 의견은 여기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바이스의 극 속에서 마라의 죽음은 곧 기존의 혁명이 패배했음을 의미하며, 이제 현재에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등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마라를 줄곧 욕조 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으로 그리면서 그의 혁명관이 과거 실제 역사에서는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이 흐른 현재에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따라서 더욱 다듬어지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38] 바이스는, 기존 사학사적인 흐름 속에서 코르데의 마라 암살을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한 것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새로운 맥락 속에 위치시키면서 더 이상 역사가 아닌 현재로 만든 것이다.

즉, 바이스의 원작과 영화 속의 마라를 따라가면, 혁명은 강한 동력을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반론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혼란 속에서 결국 끝나버린다. 더욱이 영화 속에서 마라가 죽은 뒤, 출연진들은 여성을 겁탈하고, 시설물들을 다 뜯어내기도 하며 자해하기도 한다. 샤랑통 정신병원의 원장인 쿨미에가 극중 배경인 나폴레옹의 제정을 찬양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려 하지만, 진행자는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던져버리고, 출연진들은

38) 마라와 욕조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고 : 류신, 「파블로의 '탑'과 마라의 '욕조' - 페터 바이스의 탑 모티브 연구」, 『독일언어문학』 제34집, 2006. 또한 정항균 역시 사드가 마라의 욕조를 어머니의 자궁에 비유하면서 마라의 이념이 현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았는데, 이는 곧 마라가 가진 혁명에 대한 신념이 현실과 동떨어진 개인적 환상일 뿐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정항균, 「페터 바이스의 『마라/사드』에 나타난 폭력 담론」, 『독일어문화권연구』 제23집, 2014, pp. 152-153).

모두 '성교'를 외친다. 난잡한 광경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사드를 보여주면서 바이스는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 혁명이 과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고, 사드라는 개인주의의 화신을 만나 혁명은 무용한 것이 돼버리는가?

5. 마라와 사드, 그리고 다시 1960년대

페터 바이스를 다룬 한 연구에 따르면, 바이스는 기존의 사드적인 내면에 마라라는 새로운 측면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마라가 궁극적인 승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스에게 마라는 "맑스에 앞선 사회주의적 사상의 창시자이며 혁명의 모든 잘못된 행동이 지워진 속죄양이고 유일한 진정한 혁명가"였다.[39] 그렇더라도, 위의 연구자를 포함하여 최근 연구자들은 『마라/사드』에서 바이스는 극중의 마라와 사드로부터 변증법적인 상승을 통해 자기비판, 기존의 관념 탈피 등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김겸섭은 사드와 마라의 논쟁에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앞으로 "혁명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바이스가 제기했다고 보았다.[40]

또한, 1960년대 유럽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뜻하는 마라에게[41] 다른 특징을 입힐 수 있다. "Salut

39) 남완석, 『Peter Weiss의 「Marat/Sade」와 「Die Ermittlung」 연구 - 문학창작의 동기와 작가의 자기비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p. 49.

40) 김겸섭, 「충동의 윤리와 진리의 정치: 페터 바이스 Peter Weiss 의 『마라/사드』 '다시 읽기'」,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30집, 2014, p. 69.

41) 위의 논문, p. 78.

public", 즉 공화국을 구하기 위한 억압적인 특단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마라는 당시의 권위적인 체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극 말미에 등장인물들이 '나폴레옹'을 외치면서도 나폴레옹을 옹호하는 병원장 쿨미에의 억압을 완전히 무시하며 나폴레옹 초상화를 던져버리는 장면과 같이 읽힐 수 있다. 즉 샤랑통 정신병원과 그 책임자인 쿨미에는 권위적인 나폴레옹을 대변하고 있고, 프랑스 혁명을 끝내며 등장한 나폴레옹 시대 역시 타파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42]

이러한 점은 1960년대의 저항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당시 정부의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 점차 거세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베트남에서의 군사적 개입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독일에서 60년대에 여러 차례 실시된 '비상사태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거 나치로 이어진 역사를 상기시킨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43] 프랑스 혁명기에 위험에 처한 공화국을 구한다는 논리로 등장한 각종 조치들과 독일의 비상사태법이 같을 수는 없지만, 권위적인 권력 앞에 개인은 어떤 존재인지 반

42) 더욱이, 독일에서 코르데의 마라 암살 사건이 나치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었던 점도 이 지점에서 흥미롭게 봐야 한다. 사실, 극 중에서 프랑스 혁명기 공포정이나 마라 암살 사건 그 자체는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는다. 마라와 사드의 논쟁,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의 간헐적인 개입으로 극이 진행될 때, 앞의 두 혁명사 주제는 부수적으로 인물들의 말 속에 녹아있을 뿐이다. 오히려, 영화 또는 연극은 연출가의 각색을 통해 역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 재탄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라가 단순히 프랑스 혁명만을 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는 프랑스 혁명과 극 중 사드의 연극 사이의 시간적 거리와 나치즘의 몰락과 바이스의 연극 제작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일치하다는 점을 말하면서, 마라의 말 속에 나치의 언어가 들어있고, 회고적인 나폴레옹 시대를 당시 독일 사회와 비교하면서 당대 독일 사회를 비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White, J. J., 'History and Cruelty in Peter Weiss's "Marat/Sade"', *The Modern Language Review* 63-2, 1968.

43) 정대성, 『68혁명. 상상력이 빚은 저항의 역사』, 당대, 2019, pp. 32-34.

문할 수 있는 구도라는 점에서 병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는 사드는 60년대 유럽에서 달궈지고 있던 자유의 움직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사드가 혁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권위가 가지는 위험을 경고한다.

> "이제 이 혁명이 어떤 결과를 낳으리라는 게 내 눈에 보인단 말일세. (...) 개인이라는 건 쇠퇴해서 없어지고 모든 것이 천천히 획일성 속으로 흡수되고 말걸. 판단능력 따위도 씨가 마르고 자기 부정이 도도해질 거야. 국가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은 꿈쩍도 못할걸. 국가조직은 개인이 손댈 수 없을 만큼 저 먼 곳에 버텨 감히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게 되지. 그런 까닭에 나는 등을 돌리는 거야."[44]

이는 독일에서 학생들이 억압적인 교육 정책에 반대하고, 반공이데올로기나 반 전체주의 이념 속에서 개인을 분출시킬 수 있는 활로를 찾으려했던 시대적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 프랑스 혁명과 마라에 공감하면서도, 권위적인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혁명을 새롭게 전유한 것이다. 60년대의 권위적인 권력이 '혁명'은 아니지만, 극중의 프랑스 혁명과 권위적인 권력 모두 새로운 가치의 도전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극중에서 혁명이 개인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듯이, 저항에 직면한 권력이 권위만을 내세운다면 어떠한 파국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비치고 있다.

6. 맺음말

다시, 마라는 인민의 벗인가 아니면 자유의 적인가? 극중 진행

---

44) 페터 바이스 지음, 이상일 옮김, 앞의 책, pp. 45-46.

자가 던진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국가 수호를 위한 특별 조치가 우선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혁명과 혁명가들이 내세우는 대의가 우선인가, 개인의 이익이 우선인가? 이러한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마라의 죽음, 사드의 웃음, 난장판이 된 무대, 그리고 극중에서 제1제정기인 1808년에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던져버린 진행자, 이러한 요소들은 무엇을 전달하는가?

이러한 논의에서, 과거의 혁명이 곧 현재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피에르 세르나(Pierre Serna, 현재 파리 1대학 프랑스 혁명사 강좌 주임)가 말했듯이 혁명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부에서 새롭게 발명된다.[4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이스가 『마라/사드』에 도입한 프랑스 혁명은 당시 독일의 지식인들이 자국사와 비교하기 위해, 즉, 자국사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2차대전의 연합국과 다르게 국가사회주의와 홀로코스트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인 프랑스 혁명이 아니었다. 한 사회의 개혁, 또는 체제의 전복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얘기할 때 항상 첫 번째로 떠올리는 프랑스 혁명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을 참고하지만, 바이스는 이 희곡을 집필하던 당시의 새로운 가치들이 혁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고민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혁명은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는 '현재'에서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과거는 답습될 수 없고 과거의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결국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과거 여러 혁명이 추구했던 가치들이 현재에도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음을 볼 때, 혁명은 여전히 지

45) Serna, P., 'Toute révolution est guerre d'indépendance', Chappey, J-L., et al., *Pour 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p. 49.

속되고 있다. 이는 『마라/사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라가 암살당하면서 그의 혁명관은 더 이상 그 자체로 현재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그의 혁명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다. 바이스가 등장인물들 사이의 논쟁을 통해 드러내려고 한 핵심인 혁명의 본질은 결국 세르나가 말한 혁명의 끊임없는 재탄생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반공 시대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프랑스 혁명 해석의 수정주의자들이 프랑스 혁명이 끝났다고 말하자, 정통해석을 견지하던 학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프랑스 혁명 : 항상 살아있는 역사』라는 논문 모음집을 출판한 일을 상기시킨다.[46] 약 50년 전의 바이스가 지금 저항과 자유의 문제를 계속 고민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페터 바이스, 이상일 역, 『마라와 사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Peter Weiss, The Persecution and Assassination of Jean-Paul Marat as Performed byt the Inmates of the Asylum of charent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Marquis de Sade (English Version by Geoggrey Skelton, Verse adaptation by Adrian Mitchell), New York, The Dramatic Publishing Company, 1964

영화화된 영어판은 다음 주소에서 감상할 수 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Jc4l6pivqg&list=WL&index=75&t=0s

Oeuvres de JP MARAT (L'Ami du peuple), recueillies et annotées par A. Vermorel, Paris, Décembre-Alonnier, Libraire-Editeur, 1869

L'Ami du peuple, ou le publiciste parisien, Journal politique et impartial,

46) Biard, M. (dir.), *La Révolution française. Une histoire toujours vivante,* L'Isle-d'Espagnac, Tallendier, 2009.

par M. Marat, auteur de l'Offrande à la patrie, du Moniteur, et du plan de constitution, etc., n° 313, Du Vendredi 17 décembre 1790 (http://gallica.bnf.fr 에서 열람 가능)

2. 논문 및 단행본

Baczko, B., *Comment sortir de la Terreur. Thermidor et la Révolution*, Paris, Gallimard, 1989

Belissa, M., Bosc, Y., *Robespierre. La fabrication d'un mythe*, Paris, Ellipses, 2013

Bianchi, S., *Marat. "L'Ami du Peuple"*, Paris, Belin, 2017

Biard, M. (dir.), *La Révolution française. Une histoire toujours vivante*, L'Isle-d'Espagnac, Tallendier, 2009.

Biard, M., *La liberté ou la mort. Mourir en député 1792-1795*, Paris, Tallandier, 2015

Chappey, J-L., et al., *Pour 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Christofferson, M. S., *Les intellectuels contre la gauche. L'idéologie antitotalitaire en France (1968-1981)*, Marseille, Agone, 2009

Diaz, S., "Qu'est-ce qu'on a fait de notre révolution? La Terreur en débat dans *Marat-Sade* de Peter Weiss", *Etudes théâtrales* 59, 2014, pp. 177-186

Ducange, J-N.,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social-démocratie. Transmissions et usages politiques de l'histoire en Allemagne et Autriche 1889-1934*,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12

Ducange, J-N.,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histoire du monde. Deux siècles de débats historiques et politiques 1815-1991*, Paris, Armand Colin, 2014

Guilhaumou, J., *La mort de Marat*, Paris, Editions Complexe, 1989

Jaurès, J., *Histoire socialist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t. 4, Le gouvernement révolutionnaire*, Paris, Les Editions sociales, 2014

Lamartine, A., *Histoire des Girondins*, Livre Quarante-quatrième, Tome 6, Paris, Furne et Cie - W. Coquebert, 1847

Leuwers, H., *Robespierre*, Paris, Fayard, 2014

Martin, J-C., *La Terreur. Vérités et légendes*, Paris, Perrin, 2017
Massin, J., *Marat,* Paris, Le club français de livre, 1960
Mazeau, G., *Charlotte Corday en 30 questions*, La Crèche, Geste éditions, 2006
Mazeau, G., C*orday contre Marat. Deux siècles d'images,* Versailles, Editions Artlys, 2009
Mazeau, G., *Le bain de l'histoire. Charlotte Corday et l'attentat contre Marat 1793-2009,* Seyssel, Champ Vallon, 2009
Middell, M.,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llemagne: du paradigme comparatiste à la recherche des transfers culturel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317, 1999, url : http://journals.openeditioin.org/ahrf/266:DOI:10.4000:ahrf.266
Soboul, A. (dir.),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PUF, 2006
White, J. J., "History and Cruelty in Peter Weiss's Marat/Sade", *The Modern Language Review* 63-2, 1968, pp. 437-448
김겸섭,「68혁명과 현실부정의 연극 - 페터 바이스의『횔덜린』을 중심으로」,『뷔히너와 현대문학』제25집, 2005, pp. 47-73
김겸섭,「페터 바이스와 소수적 연극 -『마라/사드』를 중심으로」,『브레히트와 현대연극』제21집, 2009, pp. 115-147
김겸섭,「충동의 윤리와 진리의 정치: 페터 바이스 Peter Weiss의『마라/사드』'다시 읽기'」,『브레히트와 현대연극』제30호, 2014, pp. 59-90
김겸섭,「논쟁의 연극적 공간과 개방적 리얼리즘 - 페터 바이스 총체극의 리얼리즘 고찰」,『독일어문학』제74집, 2016, pp. 1-25
남완석,『Peter Weiss의「Marat/Sade」와「Die Ermittlung」연구 - 문학창작의 동기와 작가의 자기비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류 신,「파블로 Pablo의 '탑'과 마라 Marat의 '욕조' - 페터 바이스의 탑 모티브 연구」,『독일언어문학』제34집, 2006, pp. 75-93
알베르 소불 지음, 최갑수 옮김,『프랑스혁명사』, 교양인, 2018
오제명 외,『68. 세계를 바꾼 문화혁명 -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길, 2006
예지민,『샤를로트 코르데의 혁명재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성재,『68운동』, 책세상, 2009

잉그리드 길혀홀타이 지음, 정대성 옮김,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1968 시간여행』, 창비, 2009
정대성, 『68혁명 상상력이 빚은 저항의 역사』, 당대, 2019
정항균, 「페터 바이스의 『마라/사드』에 나타난 폭력 담론」, 『독일어문화권연구』 제23집, 2014, pp. 149-182
탁선미, 「파국의 담론, 희망의 원칙: 페터 바이쓰의 『마라/사드』 다시 읽기」,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3집, 1996, pp. 300-337
한국프랑스철학회 엮음, 『철학, 혁명을 말하다』, 이학사, 2018

(**투고일**: 2019. 8. 16 **심사완료일**: 2019. 9. 20 **게재확정일**: 2019. 9. 23)

김대보
소속 :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전자우편 : daebo.kim@gmail.com

[Abstract]

Marat/Sade : Appropriating The French Revolution in the 1960s

Kim, Dae-bo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what is the revolution that Peter Weiss presents in his Marat/Sade. Marat represent the French Revolution in this play, but his revolution is not adaptable to the new era according to Weiss. The author says therefore that the principle and the value of the revolution must be changed constantly for being adapted to the reality. In this point, the revolution thought by Weiss is not over at the time of the death of Marat in the play, but continues with new values of the society. Weiss tells us consequently the message about the resistance and the liberty.

Key words : Peter Weiss, Marat/Sade, Revolution, French Revolution, Resistance, 1960s